

제12대 관인농협장 4명 후보 각축전

조성태 조문희 이수기 최호선 출마 지지호소

조합원 1천90명이 직접 선출하는 제12대 관인농협 조합장 선거가 오는 12일 관인농협 2층 회의실과 중리 마을회관 등 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관인농협장 선거에는 현 이수기 조합장을 비롯한 조성태 前 조합장, 조문희 현 쌀 전업농 회장, 최호선 관인농협 이사 등 4명이 출마표를 던지고, 조합원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기호1번 조성태 후보는 ▶책임과 투명성이 있는 경영으로 조합원의 불신해소 ▶영농자재 물가대책 ▶농협운영 자문위원제(농업인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농산물 판매문제 해결 ▶여성조합원의 건강검진(종합검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번 조문희 후보는 공약으로 ▶친환경 쌀 생산 계속사업으로 추진 ▶비료, 농약 실질적인 농가 부담 최소화 ▶농기계 통합보관시설 마련 ▶부서별 책임경영제도와 수시 감사제도 도입 ▶관인시장 활성화 위해 구내식당 폐쇄 ▶업무용 차량 직인환원 등을 내세웠다.

기호3번 이수기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원로조합원 복지 향상 일환으로 경로당, 게이트볼장 지원 확대 ▶여성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민요교실, 건강교실 운영 ▶벼 전량 자체수매, 친환경농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선 ▶원예농업 적극 지원 ▶축산인 지원 ▶1시촌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이다.



조성태 후보

조문희 후보

이수기 후보

최호선 후보

기호4번 최호선 후보는 공약으로 열린경영, 환원사업, 판매,유통사업 등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경영 투명공개 조합원중심 농협경영 ▶여성이사제 도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조합원 경영참여 ▶환원사업 적극 확대

개발 ▶경제부 참고 개,보수 장래 예산장 설치 ▶조합장 승용차 폐지 ▶조합원 벼 전량수매 ▶유통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 등을 내세웠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농업그린대학 개강

포천시 농업전문가 육성계기 마련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게 될 '포천그린농업대학'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탐구하는 지성, 창조하는 노력, 도약하는 농업을 교훈으로 정한 포천그린농업대학은 국내최초로 "그린농업경영"을 주제로 해, 7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0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농업기반이론 및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실습, 교양강좌 등으로, 제1기 과정이 운영된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7명이 자체 강사로 나서 농업경영학, 재배학, 원예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업정보화 등에 관해 강의하며 외래강사도 6명이 초빙된다.

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1층 강당에서는 제1기 입학생 42명과 시 관계자, 내빈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포천그린농업대학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제1기 입학생 42명과 시 관계자, 내빈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포천그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을 통해 "포천그린농업대학 1기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21세기 지역농업을 도약시키는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입학식은 이 밖에 교수 위촉장 수여와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의 축사, 농촌진흥청 이충현 친환경기

술과장의 특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입학생 분포를 보면 30대가 7명, 40대가 21명, 50대가 14명이며, 영농경력 30년 이상이 8명, 20년 이상이 15명, 10년 이상이 13명, 5년 이상이 5명, 5년 미만 1명 등이다. 작목별로는 논농사 20명, 원예 6명, 특작 6명, 축산 10명 등이다.

포천그린농업대학은 지난달 21일 준공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의 집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점차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연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세무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무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가 도래하기 전에 위치함으로서 남북 전진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생산자의 안정적인 원유공급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HACCP 기준에 의거, 안전하고 깨끗한 살비로 준공한 센터가 낙농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인 경우의 세무계산서 교부시기

• 세무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 세무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하는 자는 세무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 이용가능한 때
 - 기타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가 제공되거나
 - 재화·시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무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세무계산서 교부시기

• 세무계산서 교부특례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과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마다 세무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월간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달력상의 월)의 기간 범위내에서 공급금액을 합계하여 세무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무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동북부 낙농지원센터 준공

위생적인 원유유통과 낙농가 지원 향상 기대

서울유류협동조합 동북부 낙농지원센터(소장 정재호)의 준공으로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낙농가와 소비자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원유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유류협동조합 동북부 낙농지원센터(이하 낙농지원센터)는 지난 7일 서울유류와 경기도 2청, 포천시 관계자 및 낙농인 등 350여명이 참석해 낙농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준공테이프 컷팅, 현관제막식 및 시실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소재의 낙농지원센터는 총 3천40평의 부지에 건평 590평으로 일평균 집유량 240리, 42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포천시, 가평군, 철원군 352호의 조합원이 이용하게 된다.

낙농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서울유류 동북부 조합원에서 생산된 우유(원유) 집유, 원유 검사 ▶서울유류 동북부 조합원 낙농관련 민원처리 ▶조합원의 낙농기술 지도 및 가족경제지원 등의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준공한 동북부낙농지원센터

터가 건설되기까지는 ▶1977년 동북부 집유소 개소(신북면 가재리) ▶2002년 9월 23일 신부지 취득(영중면 성동리) ▶2003년 8월 26일 건축허가 취득 ▶2004년 4월 7일 건축물 차공신고필증 취득 ▶2005년 4월 20일 건축물 사용승인서 취득 ▶2005년 6월 13일 집유장 영업허가 취득 ▶2005년 6월 20일 센터 이전 ▶2005년 7월 7일 동북부 낙농지원센터 준공식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김재술 서울유류협동조합장은 기념사에서 "동북부 낙농지원센터가 통일의 거점인 포천에 위치함으로서 남북 전진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생산자의 안정적인 원유공급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HACCP 기준에 의거, 안전하고 깨끗한 살비로 준공한 센터가 낙농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낙농업의 발전과 낙농인들의 단합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조합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7일 영중면 성동리 서울유류협동조합 동북부 낙농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준공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④

신광수지

건축자재에 필요한 양질의 원료생산 업체



대표 오명수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무심코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중에는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많아 잘만 활용한다면 국가경제를 살찌우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지고 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생산으로 국가경제 살찌우는 소중한 자원 개발에 적극 동참

198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각 언론매체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공장이나 가정에서도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우유 팩, 페트병 등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해 재활용으로 사용하면 생활쓰레기 감소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줄여주고 있다.

신광수지(포천시 동교동 390-2 대표: 오명수)는 이러한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가공해 하수관 및 평판용, 이중벽판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급하며 내실 있는 경영을 펴고 있다.

신광수지는 도내에 있는 PE 재활용업체로부터 탈수, 분쇄된 1, 2차 가공된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아 독특한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약 20여 개의 협력업체로 공급하고 있다. 재활용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음, 먼지, 악취 등이 심할 것 같지만 신광수지는 1,2차 가공을 거친 후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쾌적한 작업환경을 자

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재활용업체들은 생각 외로 매우 영세하다고 한다. 취급하고 있는 품목자체가 남들이 지지분하다고 생각해 기피하고 있는 직업이며 창업 시 자본금이 적게 들어 영세한 자금을 출자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여 년 정도 재활용업체에 몸담아 온 오 대표는 "예전에는 근로자들이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것으로 인해 작업환경개선, 세금 감면혜택, 공적자금지원 등을 요구하며 재활용 업체들이 몇 차례 시위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는 먹혀들지도 않았고 그저 국가의 처분만 기다렸을 뿐"이라며 "전국의 재활용업체들이 한달 정도만 가동을 중단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을 생산할 때 차후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환경을 미연에 방지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오 대표는 예전에 비해 마진율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생산라인이 자동화되어 위험요소도 줄고 생산량이 많아져 그나마 업체를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돈독한 관계로 사계절

꾸준하게 원료를 생산하고 있어 납기나 신용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인정받는 양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선정, 단가, 제품 등을 고역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판단, 생산해야 한다는 오 대표의 평소 해법경영이다. 이러한 경영을 토대로 신광수지는 팔이 보이지 않는 불황을 타개하며 동종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신광수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공급받아온 협력업체들은 우수한 원료사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자사의 이미지를 업 시키고 있다. 20여 년 동안 한 우물을 파오며 성장해온 신광수지는 "근면"과 "정직"이란 사훈을 토대로 음지에서 환경을 생각한다는 마인드아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문의 031) 541-4859

정병각기자 jpk61@paran.com



신광수지(포천시 동교동 390-2 대표: 오명수)는 재활용 품목을 가공해 하수관 및 평판용, 이중벽판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불량 적재된 타일파렛트 위에서의 추락사고

OO공업 옥외 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타일박스에 비닐덮개를 씌우기 위해 파렛트를 거처한 후 타일박스 상부에 올라가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파렛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상황도

재해 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하는 경우 별도의 승강설비(사다리 또는 작업 발판)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했다.

둘째, 화물용 목재파렛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적재할 화물의 중량등을 고려한 충분한 강도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할 경우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비치하여 사용해야 하며, 둘째, 중량물 적재용 파렛트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판재나 각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제거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높이가 2m이상의 고소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